



DAOL Daily Morning Brief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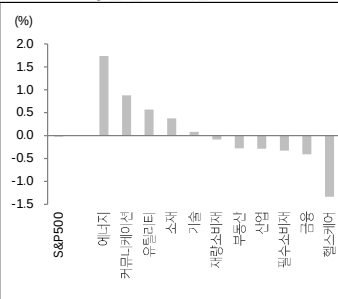
14 Oct. 2026

해외시장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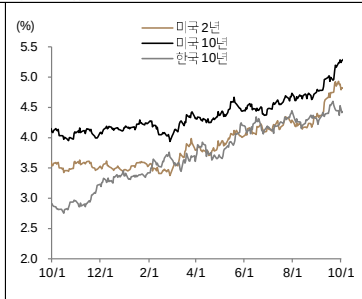
- ▶ 미국증시: Dow (-0.35%), S&P500 (-0.02%), Nasdaq (-0.15%)
 - 미국증시, 메모리 반도체 경쟁 심화 우려와 JP모건 등 주요 은행의 실적 부진, CPI 발표를 앞둔 경제심리 영향에 3대 지수 하락 마감
 - 월리엄스(뉴욕, 투표권 o) 연은 총재, 올해 금리를 한 차례 올리고 내년은 금리 인상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월러 연준 이사, 국제 금리 급등이 수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잘 고 정되어 있다고 밝힘
 - 메타, 웨어러블 디바이스 성장세와 신규 AI 모델 '뮤즈 원더' 공개에 따른 AI 수익화 기대감에 힘입어 +2.6% 상승
 - 마이크로, 중국 CXMT의 차세대 D램 기술 개발 진전과 중국 업체의 AI 서버용 메모리 시장 진입 우려 지속되며 -3.6% 하락
 - AMAT, '세미콘 웨스트 2026' 행사에서 웨이퍼 제조장비 시장의 구체적인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자 -6.7% 하락
 - S&P500, 에너지 +1.7%, 커뮤니케이션 +0.9% vs 헬스케어 -1.3%, 금융 -0.4%
- ▶ 미국국채: 2yr 4.789%(+0.2bp), 10yr 5.208%(-2.9bp)
 - 미국채금리, 글로벌 증시 약세에 따른 위험회피 매수세와 월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 연에도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맞서며 혼조 마감
- ▶ FX: JPY 158.33(-0.18%), EUR 1.12(+0.39%), Dollar 102.21(-0.37%)
 - 달러 인덱스,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와 월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하락
- ▶ Commodity: WTI \$94.14(+0.43%), Brent \$105.69(-0.90%)
 - WTI, 사우디가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석유 시설에 보복 공격을 단행하자 상승

발표일자	주요 지표	단위	예상치	실제치	이전치
10월 13일					
10월 14일	미국 9월 CPI	%yoy	3.6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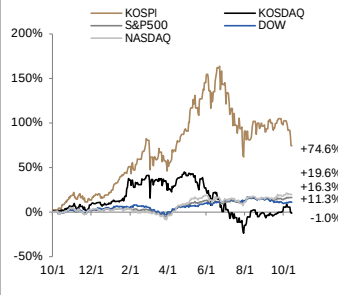
S&P500 업종별 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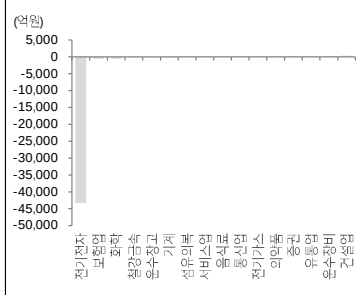
국채 수익률 추이



주요 증시 수익률 (2025년 10월 1일 이후 누적)



KOSPI 외국인 업종별 일간 순매수



Liquidity (잔액, 증감, 삼익률)

구분	잔액	1D	1W	1M	3M	1Y	YTD
고객예탁금*	100,439	329	-4,199	6,513	-11,887	25,242	12,610
미수금*	1,063	72	-984	-83	-77	84	103
신용잔고*	34,289	477	808	1,098	-2,777	10,924	7,002
MMF*	257,296	-2,918	20,426	-9,007	8,489	44,021	63,856
채권형*	217,086	401	2,825	4,625	2,518	-10,830	3,345
주식형(국내)	193,021	-6,836	-14,037	-11,112	-19,540	107,511	84,613
주식형(해외)	141,000	-1,291	512	6,162	-3,746	58,526	41,647
외국인	-4,593	-13,081	-35,947	-42,461	-208,787	-203,698	
개인	2,317	10,162	5,551	-10,095	93,724	100,546	
기관	1,669	-854	1,065	3,077	50,206	38,249	
투신	-411	-424	-1,894	-3,152	-7,829	-6,967	
연기금	51	-176	-352	-32	-10,199	-9,076	
금융투자	1,936	115	3,658	5,175	87,436	69,199	
보험	96	185	205	992	-9,330	-7,229	
프로그래밍	120	-71	983	1,067	5,832	4,992	
프로그래밍	-2,219	-7,503	-26,505	-41,901	-156,786	-156,915	

*은 D-2 거래일 기준, 펀드는 설정액 및 ETF 제외 기준, 매매주기는 KOSPI 기준

	Index	1D(%)	1W(%)	1M(%)	3M(%)	1Y(%)	YTD(%)
KOSPI	6,035.4	(5.5)	(13.8)	(13.2)	(16.7)	73.8	43.2
KOSDAQ	837.0	(1.4)	(6.3)	3.1	6.6	(2.8)	-9.6
DOW	51,670.1	(0.3)	0.3	(1.4)	(1.9)	13.6	7.5
S&P500	7,805.5	(0.0)	(0.2)	2.4	3.1	19.1	14.0
NASDAQ	27,204.4	(0.2)	(1.4)	3.9	3.6	22.5	17.0
유로 STOXX 50	6,167.0	(0.6)	(1.7)	(1.5)	(1.9)	10.0	6.4
영국 FTSE100	10,650.3	(0.1)	1.0	(0.4)	1.3	12.7	7.2
일본 NIKKEI225	67,777.5	(1.8)	(3.1)	3.8	1.4	49.4	34.6
대만 TWSE	48,341.3	(1.9)	(2.8)	2.5	6.5	84.5	66.9
홍콩 HS	24,345.2	0.3	0.3	(1.9)	(1.4)	(10.8)	(5.0)
중국 Shanghai	3,800.9	0.1	(0.8)	(3.3)	(4.3)	(0.5)	(4.2)
인도 SENSEX30	73,033.8	1.5	(0.0)	(2.5)	(5.2)	(10.7)	(14.3)
브라질 BOVESPA	206,887.5	(1.0)	(0.0)	10.5	17.1	46.4	28.4
KOSPI Sector	Index	1D(%)	1W(%)	1M(%)	3M(%)	1Y(%)	YTD(%)
에너지	7,703.9	(3.1)	(8.2)	(6.6)	7.6	82.0	61.7
화학	4,273.2	(0.2)	(3.4)	1.3	8.5	8.7	(4.5)
비철 금속 등	5,493.1	(0.6)	(6.6)	(14.6)	0.8	(5.9)	(22.3)
철강	2,090.3	(0.1)	(4.4)	(8.8)	0.1	2.5	(3.7)
건설/건축관련	2,107.8	(1.7)	(8.9)	(15.6)	0.6	42.3	38.6
기계	9,441.5	(2.3)	(15.2)	(17.6)	(11.3)	18.5	5.4
조선	6,290.3	(0.2)	(13.2)	(18.7)	(17.6)	(26.3)	(27.9)
상사, 자본재	4,847.0	(2.8)	(14.9)	(14.9)	(17.2)	56.9	39.6
운송	1,937.4	(0.4)	(1.3)	(2.2)	5.0	12.4	9.9
자동차	11,475.0	(1.1)	(7.1)	(14.6)	(27.9)	21.4	(3.2)
화장품, 의류, 완구	5,515.6	(6.2)	(6.4)	(8.4)	(5.2)	7.7	12.5
호텔, 레저서비스	1,491.5	(0.9)	(1.0)	(7.7)	(13.6)	(36.3)	(35.5)
미디어, 교육	467.9	2.3	3.3	(6.8)	(19.2)	(34.5)	(40.7)
소매(유통)	2,113.4	(1.4)	(4.4)	(15.2)	(32.9)	7.5	4.9
필수소비재	7,282.3	0.0	0.7	(0.7)	(2.6)	2.4	6.9
건강관리	8,691.2	(0.4)	(5.2)	(7.5)	(3.0)	(3.1)	(17.9)
은행	3,249.5	(0.2)	(3.5)	(8.3)	(3.3)	29.6	21.4
증권	2,380.8	(1.2)	(7.8)	(11.1)	(19.6)	10.8	6.1
보험	14,758.3	(2.2)	(4.8)	(9.2)	(10.4)	47.4	42.1
소프트웨어	5,518.2	(1.1)	(7.8)	(13.1)	(9.3)	(23.5)	(23.0)
IT하드웨어	4,194.7	(7.3)	(13.2)	0.8	(8.0)	292.0	206.1
반도체	42,352.2	(8.7)	(18.7)	(16.6)	(23.2)	214.1	103.8
IT가전	3,077.7	(0.2)	(1.0)	2.5	18.4	93.1	66.1
디스플레이	473.3	(2.4)	(10.2)	(13.3)	(28.6)	(42.0)	(32.9)
통신서비스	429.9	0.4	(6.0)	(9.7)	(5.9)	17.0	17.0
유틸리티	1,003.7	0.8	(3.9)	(12.9)	(10.4)	(12.6)	(26.1)
S&P500 Sector	Index	1D(%)	1W(%)	1M(%)	3M(%)	1Y(%)	YTD(%)
기술	7,320.7	0.1	(2.3)	6.3	8.8	32.7	28.8
헬스케어	1,979.5	(1.3)	1.6	1.5	7.3	19.5	9.6
금융	912.0	(0.4)	1.5	(3.7)	(3.0)	5.1	0.0
재량소비재	1,871.1	(0.1)	0.5	0.5	(2.9)	1.7	(3.0)
커뮤니케이션	481.7	0.9	1.5	1.6	(1.0)	18.0	6.5
산업	1,427.5	(0.3)	(1.7)	(0.5)	(6.3)	12.5	8.7
필수소비재	943.6	(0.3)	3.3	1.0	2.1	8.6	9.1
에너지	1,032.1	1.7	5.6	4.8	19.7	58.1	50.2
유틸리티	425.2	0.6	1.7	0.7	(7.5)	(7.1)	(2.0)
부동산	267.6	(0.3)	1.7	(2.4)	(5.5)	4.8	4.9
소재	633.1	0.4	0.1	(0.2)	0.0	14.4	10.2
Commodity	Index/Price	1D(%)	1W(%)	1M(%)	3M(%)	1Y(%)	YTD(%)
Reuters CRB	418.1	0.2	1.0	(1.4)	10.2	41.5	39.9
BDI	2,852	(2.2)	(7.1)	(18.7)	(4.3)	45.3	51.9
WTI(\$/Barrel)	94.1	0.4	5.3	(7.2)	18.3	58.2	63.9
Brent(\$/Barrel)	105.7	(0.9)	5.1	0.0	24.4	66.9	73.7
Dubai(\$/Barrel)	101.8	(1.5)	6.9	1.9	26.8	60.6	66.7
금(\$/oz.)	4,152.9	(0.3)	(0.2)	(3.8)	2.5	1.1	(4.3)
은(\$/oz.)	59.5	(1.6)	(3.4)	(6.3)	4.2	18.0	(15.7)
구리(\$/ton)	14,792.0	0.8	2.0	4.0	8.8	33.9	18.8
알루미늄(\$/ton)	3,054.1	0.7	(2.0)	(6.8)	(3.9)	9.7	2.9
천연가스(\$/MMBtu)	3.28	3.7	5.4	13.4	12.3	5.3	(10.9)
FX	Price	1D(%)	1W(%)	1M(%)	3M(%)	1Y(%)	YTD(%)
달러 인덱스	102.2	(0.4)	0.4	2.8	1.4	3.4	4.0
원/달러	1,342.3	0.6	0.3	(0.4)	(9.3)	(6.6)	(7.1)
원/100엔	848.1	0.8	0.2	(2.9)	(7.0)	(9.9)	(8.0)
위안/달러	6.69	(0.0)	(0.2)	(0.3)	(1.7)	(6.0)	(5.4)
달러/유로	1.12	0.4	(0.5)	(3.0)	(2.1)	(3.5)	(4.7)
엔/달러	158.3	(0.2)	0.1	2.6	(2.5)	4.2	1.0
Bitcoin(\$)	83,343.7	0.4	2.0	(3.4)	30.8	9.5	(4.9)
Bond & Credit	Price	1D(bp)	1W(bp)	1M(bp)	3M(bp)	1Y(bp)	YTD(bp)
국고채 3년(%)	3.85	(6.6)	(7.5)	(4.6)	7.6	132.2	90.1
국고채 10년(%)	4.22	(7.7)	(13.7)	(18.0)	(3.0)	133.5	83.5
미국채 2y(%)	4.79	0.2	(0.9)	13.1	64.8	130.1	131.6
미국채 10y(%)	5.21	(2.9)	(7.1)	22.1	65.5	120.8	104.1
독일 국채 10y(%)	3.47	(0.9)	(1.1)	(5.0)	33.4	90.4	61.2
북미 투자등급채(bp)	117.9	0.1	(1.1)	2.6	1.4	(0.3)	5.3
북미 투기등급채(bp)	347.8	3.6	0.1	45.9	42.5	11.1	7.1

*데이터 출처는 D-1 거래일 기준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3자의 정보의 정확성이나 정확성을 당사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자의 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권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경할 수 없습니다.



IT

IT

中 CXMT 쇼크?...4F스퀘어 D램 연내 상용 파급력은 <https://buly.kr/8eoOeVn>
중국 CXMT가 4F스퀘어 기반 서버용 DDR5 연내 출시를 추진하며, DUV 공정 고도화를 통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격 가능성 부각

브로드컴·인텔 CEO "AI 성장 최대 걸림돌은 자금 조달"...투자 수익성 경고 <https://buly.kr/7bJqlei>
브로드컴은 메모리 공급 부족이 1년 뒤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AI 투자 확대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자금 조달과 투자수익률을 지목

산업재

조선/기계/방산

"핵잠수함 경력직 모십니다"...한화오션, 정부 사업 발맞춰 조직 신설 <https://buly.kr/H6klDBQ>
한화오션은 차세대 함정 기술 경쟁력 확보와 미래 해양 방산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추진 함정 분야 전문 인력을 모집

건설/부동산

"3기 신도시 용적률 높여 6.4만가구 더...수도권 주택 공급·이주 수요 동시에 해결" <https://buly.kr/90dumTO>
한국도시부동산학회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300%로 상향해 공동주택 6만3,677가구를 추가 공급하자는 스마트 이주대책 제안

철강

창원 철강공장 창고 화재, 52시간 만에 초진 <https://buly.kr/28wMFqt>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철강공장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52시간 만에 초진

소비재

자동차/모빌리티

매출 300조 시대 연 정의선... 피지컬 AI로 확장 <https://buly.kr/31W9A3S>
토요타와 글로벌 양강체제 구축, 아틀라스 2028년 공장현장투입. 美관세·中저가공세 돌파는 과제

中 자동차 수출 1200만대 시대...韓 수출·내수 동시 압박 <https://buly.kr/58VEvzr>
전체 수입차 중 비중 50% 육박. 수입량 10만대 돌파도 최초

화장품

토니모리 '본셉', 다이소 색조 시장 확대...비타씨 베이스·립스틱 10종 출시 <https://buly.kr/H6klfBL>
토니모리가 다이소 전용 브랜드 '본셉(BONCEPT)'의 색조 제품군을 확대하며 가성비 화장품 시장 공략

의료기기

시지바이오 필러 '페이스템', 대만 품목허가 획득 <https://buly.kr/Cs1UsD>
시지바이오가 칼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HA) 필러 제품 페이스템의 대만 시장 진출을 본격화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 폴리펩타이드 공개매수 최소 조건 충족...응모 지분 66.7% 넘겨 <https://buly.kr/GkvFm3T>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폴리펩타이드그룹 공개매수에 대상 주식의 87.88%가 응모해 최소 조건(66.7%)을 넘기며, 규제 승인 후 인수가 마무리될 전망

셀트리온, 日서 '옴리클로' 경쟁력 집중 조명...'퍼스트무버' 출시 <https://buly.kr/15RoTSG>
셀트리온은 일본에서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를 퍼스트무버로 출시하기 앞서 세계알레르기학회에서 임상 근거와 공급 역량을 알리고, 현지 시장 선점

음식료

中 현지서 존재감...오리온, 감자스낵으로 성장축 키운다 <https://buly.kr/C0CnI2s>
오리온은 현지화 제품과 유통망을 바탕으로 중국 감자스낵 매출을 상반기 27% 늘렸으며, 감자스낵을 글로벌 매출 1조원 규모의 성장축으로 키울 계획

서비스

인터넷/게임/레저

카톡에 한국형 AI 에이전트 도입...말로 주문·예약까지 <https://buly.kr/74ZzkhX>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자체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한국형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대화부터 주문·예약까지 처리하는 서비스로 진화

엔씨, 'AGF 2026' 메인 스폰서 참가... 신작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선보인다 <https://buly.kr/BeNHfWw>
엔씨가 신작 RPG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를 통해 'AGF 2026'에 메인 스폰서로 참가

운송

삼성SDS, 항공운송 물류 사업 확대 <https://buly.kr/1GMZLxq>
'우정항공' 지분 100% 인수 계약. 아시아발 화물까지 통합 운영

금융

새마을금고·OK저축은행도 해킹...금융권 유출 피해 6만명 넘어 <https://buly.kr/CsmaMIT>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며 금융권 피해가 6만명 상회

'퇴직연금 개인용 국채' 압도한 미래에셋증권...첫달 점유율 1위 <https://buly.kr/7x9MtVN>
미래에셋증권, 지난달 도입된 퇴직연금 계좌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에서 첫 달 점유율 1위